

뉴노멀 물류 키워드 #e-풀필먼트 #ラスト마일 #디지털화

CJ대한통운, 물류산업 트렌드 제시
곤지암 메가허브에 e-풀필먼트
밤 12시 주문, 다음날 배송 가능
새벽·당일·즉시·지정일 배송 등
소비자 'ラスト마일' 수요 다변화



CJ대한통운 e-풀필먼트센터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반 AI 로봇 디팔레타이저.

물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노멀 시대 물류의 키워드는 ▲e-풀필먼트 ▲ラスト마일 ▲디지털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SSME 2021)'에서 자사 안재호 이커머스본부장이 엑스포 이튿날인 11일에 '뉴노멀 시대 물류산업 트렌드 및 CJ대한통운 사례'를 주제로 이강

은 내용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소비자의 온라인 주문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e-풀필먼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풀필먼트'

란 온라인 판매자를 대신해 유통사나 물류사가 상품을 보관하고 주문 즉시 상품선별, 포장, 분류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례로 CJ대한통운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택배 허브터미널인 곤지암 메가허브 상부층에 e-풀필먼트센터를 두고 이커머스 고객사의 상품을 미리 입고시켜 소비자의 주문이 접수되면 바로 출고-택배배송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밤 12시까지 주문해도 다음날 배송이 가능한 융합형 e-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인ラスト마일도 부각되고 있다.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안전하고 빠른 배송, 맞춤형, 비대면 배송, 친환경 배송 등 희망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새벽, 당일, 즉시, 지정일 배송 등으로 소비자들의ラスト마일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나 이동중지로 발생하는 인력공급 감소,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 증대로 물류산업에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도 트렌드 중 하나다.

인력공급 중단 우려, 물동량 증가에 따른 빠른 주문처리, 정확성의 향상과 비용절감이 필요해지면서 물류 각 단계에서 로봇 기술, 자동화 장비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CJ대한통운의 자동화 사례로 물류센터 내 피킹 고도화 시스템, 포장박스 추천 및 자동포장 시스템, 다면 바코드 스캐너 등이 소개됐다.

안 본부장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봉쇄, 생산차 운영중단 등의 사태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 재편하면서 물류사들 역시 재고관리와 화물 이동에 대한 가시성 강화, 항공-해상 연계운송, 중국횡단열차(TCR),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같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보-충북대, 소재 우수기업 적극 육성

강소특구 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충북 지역에서 기술 우수 기업 추가 육성을 위해 나섰다.

기보는 지난 11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뉴딜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충북대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소재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소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로, 2018년 7월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에 강소특구가 지정됐다. 오창과학산업

단지를 배후공간으로 구성한 충북 청주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를 중심으로 스마트IT 부품·시스템을 특화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강소특구 소재 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기술평가와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공제, 기술보호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해 충북 청주 강소특구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R&D 특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두 기관은 강소특구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 등 상호 교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술혁신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기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새출범

중기기본법 개정에 명칭 변경
오동운 원장 "위상·역량 높일 것"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새 출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회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법정 연구기관의 명칭이 바뀌에 따라 지난 11일 출범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승격된 이후 4년 만에 중소벤처 관련 국가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위상을 확립한 셈이다.

오동운 초대 원장은 "중기벤처연 출범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 정책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확실한 대안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 최고 국책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위상과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이날 출범식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중



지난 11일 서울 대방동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범식에서 (앞줄 왼쪽부터)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박순환 건우정공 대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동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동선 법무법인 화우 고문,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연

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출범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연구를 추진하고 양질의 연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면서, 세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전문 연

구기관으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권 장관을 비롯해 송갑석 의원, 김교흥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그리고 김인호 초대 중소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전임 원장 등이 참석해 연구원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김승호 기자

"침실 스타일링 '시몬스 룩' 경험 하세요"

하월곡에 '시몬스 맨션 미아점' 오픈

시몬스가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시몬스 맨션 미아점'을 새로 열었다.

13일 시몬스에 따르면 '시몬스 맨션'은 시몬스 침대 본사가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진열 제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100% 지원하는 매장이다.

대리점주에게는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매장 운영과 제품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소비자에게는 일관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몬스 침대의 선도적인 프로그램이다.

시몬스 맨션 미아점은 현대백화점 미아점, 이마트 하월곡점을 비롯해 LG전자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상업 시설이 모인 핵심 상권에 위치해 이사 및 혼수를 준비하는 고객들의 유입이 기대된다. 또 신혼부부 및 가족 단위 거주 비중이 높고 있는 길음 뉴타운과 장위 개발 지역 중심부에 자리 잡아 삼각산동, 돈암동, 성북동, 미아동 등 강북구와 성북구의 수요를 폭넓게 아우를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나이스뷰티 강남점 오픈

프랑스 화장품 아이오마 체험매장

청호나이스는 화장품 브랜드인 나이스뷰티가 오프라인 매장인 나이스뷰티센터 강남점을 새로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나이스뷰티센터는 2019년부터 청호나이스가 독점 공급 계약을 통해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프랑스의 맞춤형 화장품 IOMA(아이오마)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다.

아이오마는 피부타입 측정 후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세계최초로 보유했으며 현재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 소개되고 있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다.

아이오마 대표 제품인 마크렘은 내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 한 뒤 진단 내용을 아이오마 인랩(화장품 제조기)

에 입력해 8가지 세럼을 체계적으로 조합해 탄생하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이다. 아이오마는 개인 맞춤형 화장품 외에도 보습, 활력, 재생, 정화, 광채, 진정, 지복함, 브라이트닝, 프로페셔널, 바디까지 현재 총 10개의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1996년 화장품 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화려하진 않지만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대표 브랜드로는 카베렐라, 휘엔느, 아이오마 등이 있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G7 동반 참석한 김정숙 여사, 美·日 정상 배우자와 첫 만남 /사진 뉴스스
▲ 안철수, 이준석 당선 첫 입장 표명 "정치 변화가 시대정신"

▲ 작년 징계 지방공무원 1432명...대부분 '숨방망이'
▲ 박용진 "이재명 기본주택, 청사진만 잔뜩...실체 모호"



▲ 정의용·블링컨, 외교장관 회담...“北 대화 견인 공조”
▲ '이준석 돌풍' 호남 정치권 촉각...“민주 텃밭” 대선·지선 격랑 예고 /사진 뉴스스